

발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24-016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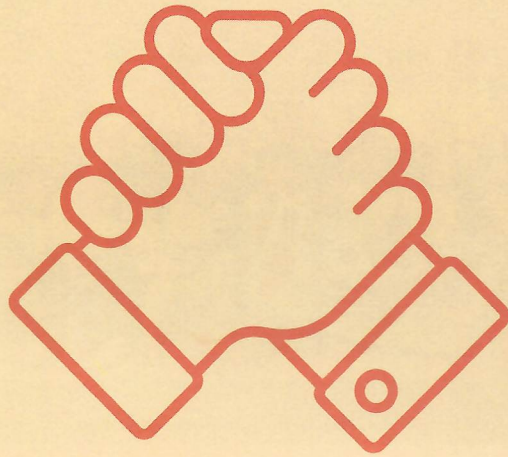
함께하는 변화, 2024년

서울형모아어린이집

수기 공모전 사례집



#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함께 건강 한 걸음!  
걸으며 행복해져요**

**송파구  
위례 공동체**

# ‘함께 건강 한 걸음!’ 걸으며 행복해져요



## 위례 공동체는...

「위례 공동체」는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에 위례새솔어린이집, 힐스송파어린이집, 송파더샵어린이집, 꿈초롱어린이집, 조이어린이집으로 3개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2개의 가정 어린이집 총 5개의 크고 작은 어린이집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배려하고, 존중하며, 안전 보육을 기본으로 더불어 건강하도록 한다”는 비전에 맞춰 영유아, 교사, 양육자, 지역주민 모두가 모아 어린이집이 무엇인지 알고 적극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가장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위례새솔 어린이집에서의 장소공유, 인력공유

와 각 어린이집의 놀잇감과 물품의 공유, 공동 구매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해 다양하고 풍부한 놀이환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영유아의 놀이에 대한 동기 유발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함께! 건강 한 걸음

2021	2022	2023	2024
제 1기 모이어린이집 선정	걸음으로 인한 다양한 놀이 발전	만보기 활용 건강수 측정 목표설정, 시기/인원별 흐름 파악	손목터더 9988 활용

영유아 프로그램 '함께! 건강 한 걸음' 의 흐름

**이런 활동을 했어요.**

위례 공동체는 비전에 따라 건강과 안전에 중점을 두었고 건강을 위하여는 “함께! 건강 한 걸음”이라는 슬로건을 세워 영유아 걷기, 가족 걷기, 교사 걷기까지의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영유아, 양육자, 교사까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하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력예방, 응급처치 등의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자녀와 함께 놀이를 통한 활동을 하며 부모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아이들의 발달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은 다양한 모아 학습공동체 모임의 역할도 컸습니다.

위례 공동체가 함께 해온 여러 프로그램 중 ‘함께! 건강 한 걸음’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제 1기 선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행하며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영유아 걷기’를 시작하며 다른 어린이집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함께 어울리고 놀이하며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걷기는 생태놀이와 오감놀이를 이어졌으며 또 각자의 놀이 방법도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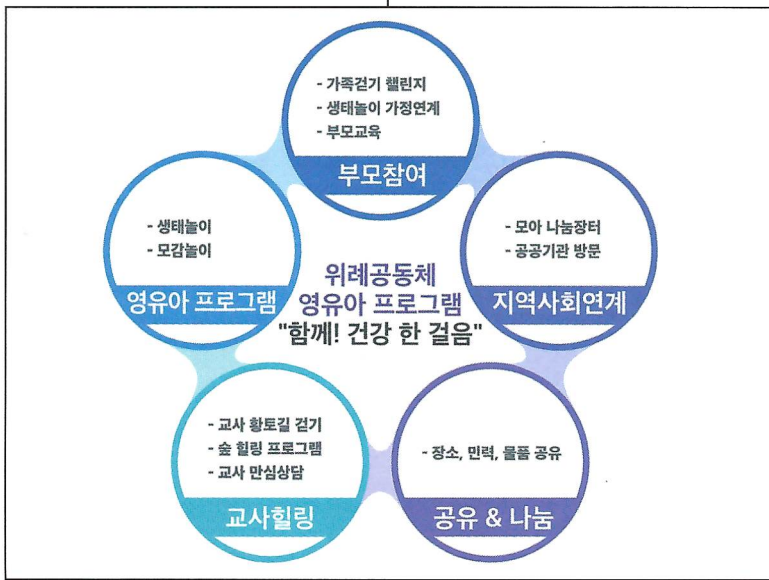
할 수 있어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를 즐겨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2022년부터는 교사 걷기도 함께 실행하여 건강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2023년에는 만보기를 활용하여 목표 걸음 수를 세우고 함께 걸어보며 더 많은 시간을 밖에서 걷고 뛰며 놀이하는 계기가 되었고, 2024년에는 가정과 어린이집, 교사 모두 손목닥터 9988을 활용하여 포인트 쌓기까지 하면서 걷기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함께! 건강 한 걸음’의 프로그램으로 생태놀이, 오감놀이, 부모참여, 환경캠페인, 지역 사회연계까지 확장되어 영유아는 보다 풍부한 경험을 하고 보육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건강 한 걸음**

‘함께! 건강 한 걸음’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리더교사는 모임을 통하여 영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야기 나누며 걷기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들의 배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고 더 다양한 지원을 해주기 위한 계획을 세워 기존 계획에서 변경 또는 확장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더교사의 모임뿐만 아니라 각 어린이 집의 같은 연령의 교사들도 한 달에 한 번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모임 장소를 정하고 함께 만나 같은 연령에서의 놀이와 반응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반영하였습니다.

계획에 맞추어 영유아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밖에서 모아어린이집이 다같이 모여 걷고 놀이하며 어울립니다. 같은 연령끼리의 만남, 근거리 어린이집 2~3군데씩 만남, 형님반과 동생반의 만남 등

다양한 형식의 걷기를 계획하였습니다.

모아어린이집 친구들이 함께 만나 인원이 많을 때는 안전을 위하여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 각 어린이집에 도착하는 것까지 함께 도와서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린이집 근처에서만 걷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연계로 확장하여 동네 위례 파출소를 부모님과 함께 걸어서 방문해 경찰 아저씨도 만나고 경찰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였습니다. 송파소방서 안전 교육은 장소 공유로 모아어린이집 중 규모가 큰 위례새솔 어린이집에서 찾아오는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모아어린이집 중 유아반 친구들은 위례새솔 어린이집으로 모여 화재 시 대피하는 자세와 옷에 불이 붙었을 때 행동, 소화기 사용법 등을 배우고 직접 실습해 보며 실감 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였습니다.



의 우산을 공유하여 함께 쓰고 손을 우산 밖으로 뻗어 비의 촉감도 느끼며 걸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른 어린이집 친구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를 걸으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잘못된 행동임을 아는 영유아들과 함께 환경보호 캠페인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고 유아들은 직접 만든 피켓을



걸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생태놀이가 이루어지고 영유아가 스스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놀이를 만들어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밖에서의 놀이가 실내놀이로 이어져 관찰했던 애벌레와 달팽이를 교실에 데려와 먹이를 주며 키우고, 주워 온 열매로는 액자 만들기가 이루어졌으며 비 오는 날의 산책 후에는 나만의 우산 만들기 등 다양하게 확장하였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는 물 또는 건강차 마시며 걸기를 하면서 물로 그림 그리기, 또 그림자 놀이를 통해 그들의 고마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모아어린이집이 함께 만나 걷고 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 가장 가까운 위례새솔 어린이집에서 여분

들고 캠페인을 하며 환경보호를 알리는데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행사로 모아어린이집 위례 공동체는 올해도 '제 4회 모아 가족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에 가족과 함께 자연생태 놀이와 걷기를 하며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을 느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가족 걷기 행사를 통해 형제자매가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같은 모아어린이집의 공동체임을 알고 더 반갑고 좋아하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걸으면서 즐겁게 미션을 수행하고 친구들을 만나 더 큰 기쁨을 느꼈으며 부모님

들은 아이들이 모아어린이집 내의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며 서로 소개도 하는 상황에서 제일 궁금했었던 친구 이야기도 듣고 만날 수 있어 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교사들은 각 어린이집의 업무 분담으로, 개별적으로 했다면 많았을 업무의 과중을 줄일 수 있었으며 주말에 우리 동네에서 같은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도 여러 다른 어린이집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위례 권역의 모아 어린이집이 다르지 않고 협력과 상생한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아어린이집 위례공동체는 '함께! 건강 한 걸음'을 교사도 실천하며 '손목닥터9988'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걷기와 위례 내에 황토길 걷기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 맨발로 즐겁게 황토길 걷기를 하면서 여유로움과 건강해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포인트를 쌓고 사용하여 따봉이 를 이용하거나 맛있는 간식을 구매하는 건강과 절약의 일석 이조의 기쁨도 얻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이 모든 것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함께! 건강 한 걸음」의 걷기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걷기 과정에서의 놀이와 탐색을 통해 배워 가며 교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였고, 교사 또한 아이들의 모습을 더 세심히 관찰하며 무엇을 지원해 주면 좋을지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밖을 나가 걸으면서



인 정서가 형성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해 공동체는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지키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함께 나누면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한 위해공동체 모아어린이집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동체를 진행함으로써 각 어린이집의 모든 교사가 모아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교사들 간의 협력과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여 더 나은 보육환경을 제



시야가 넓어지고 하늘과 땅, 주변 환경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나뭇잎의 색깔 변화, 모과, 감, 매실 등 열매의 색, 크기, 촉감의 변화와 바람의 세기, 하늘의 색깔 등 자연 관찰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언어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감성적인 아이로 자라고, 또 함께 걸으며 다양한 식물과 개미, 나비, 잠자리 외에도 여러 곤충을 관찰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 먼저 주워야 한다고 말하는 자연 환경을 사랑하고 지키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건강 한 걸음’을 통해 다 함께 걷고 뛰어놀며 다양한 자극을 받고 서로 배움과 나눔을 가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상호작용도 늘어 긍정적

공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저 또한 모아 어린이집 참여 교사의 일원으로 다양한 기회를 접하며 성장하고 지역 내 아이들이 함께 만나 어울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뿌듯함과 자긍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모아어린이집을 통해 보육 전문성이 높아지는 질 좋은 보육환경 속에서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인구 감소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